

현실의 벽 앞에 머물러 있는 세대에게 주는 열정과 도전의 메세지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의 주인공
박영숙 선생님을 만나다.

YWCA에서 선정하고 한국씨티은행에서 후원하는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하신 박영숙 선생은 한국여성운동의 산증인이자, 환경운동의 대모님으로 불린다. 이화여자대학 시절부터 YWCA 연합회 일을 시작했고, 험난했던 사회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인권문제, 여성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는 사는 집이 민주지사나 운동권 인사들의 아지트로 불릴 정도였고, 80년 대에는 부천시 성고문사건 대책 위원장, 용공조작 및 고문철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거치며,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하셨을 정도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갑이 넘은 연세에 환경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시는 등 스스로 평생 교육을 실천하며, 많은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어 준 인생의 멘토, 그 박영숙 선생을 만났다.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YWCA와 한국씨티은행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한국씨티은행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탁월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파트너로

YWCA라는 여성단체를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아직 사회적 현실은 이렇지 못하다. 이번에 받은 소정의 상금은 또 하나의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무역 활동의 종자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인생에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행운이 있다면 인생의 고비고비 마다 최고의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었고, 생을 중단 없이 꾸준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멘토는 대학 때 만난 박 에스더 선생님이다. 박 선생님은 오늘날 저의 삶의 형태나 생활양식을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때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대학에 입학 했을 때 처음 뵈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시민사회운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동시에 여성의 리더십을 키우고 훈련하는데 헌신하신 분이다. 이 분 덕에 YWCA에

서 활동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두 번째 멘토는 바로 저의 남편(신학자 고 안병무 교수)이다. 남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보호받으며 활동했던 YWCA를 넘어서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의식을 형성하게 해 준 사람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해 주었고, 나만 편한 삶이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알게 해 준 사람이다.

세 번째 멘토는 고 김대중 선생님이다. 30대에 YWCA 총무직을 맡게 되었는데, 전임총무가 사임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전임총무 분이 바로 이회호 여사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특히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주는 것 같다. 멘토가 굳이 선택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멘토인 것이다.

선생님께서 여성문제와 인권문제, 환경 그리고 이제는 나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 어쩌면 각각이 그 시대의 화두가 되는 주제였던 것 같다. 그만큼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변화에 대응하시면서 살아왔는데, 그 열정의 원동력이 궁금하다. 그리고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해 들려달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한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단지, 주어진 것이 있을 때, 첫사랑을 만난 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또한 어떤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당면한 문제들 앞에 바로 서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실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삶의 자세가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싶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쉽지 않은 시기에서 어떠한 계기로 사회활동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평화민주당 총재 권한대행까지 지냈고,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주목 받으셨는데, 어떠한 연유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저는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는데, 그곳이 많이 개화된 곳인지는 몰라도 남녀차별을 모르고 자랐다. 어머니께서도 밥을 주실 때면, 아들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 순으로 주셨다. 그래서인지 여자로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스스럼이 없었던 것 같다.

또한 평양에는 병원이나 자선단체가 많았는데, 그렇게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다. 어린 시절 친구와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나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어머니로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던 장면이 기억난다.

여성운동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성운동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가 법제화 등으로 마무리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를 권유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지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 활동하시는 일들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듣고 싶다.

공정무역 그루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이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를 모토로 동남아 여성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사와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다. 현재 동남아 여성들은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들에게 자선적 지원이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곳의 물건들은 모두 만든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제품들이다. 많이 와서 돌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나 스스로를 고용하는 일을 만들고 있다.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것이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http://www.fairtradegru.com>)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달라.

몇 년 전 한 때 은퇴를 고려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책을 통해 한 분의 존경스러운 분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의 '오가타 사다코'라는 분이다. 이 분은 90세가 넘는 나이에 현역으로 UN기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해 평생 현역으로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됐다. 이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인생의 각 시기를 충실하게 보내셨다는 것이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했고, 가정을 꾸릴 때는 가정에 헌신했고, 전문성을 키울 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부해야 할 때라면, 혹은 전문성을 키울 때라면 현실을 핑계대지 말고, 각 시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란다. 나의 경우, 70세가 넘어서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스스로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한다.

정확하게 책 제목이 기억나지 않지만,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들의 책들을 즐겨 읽었다. 독일의 환경운동가 패트라 켈리의 책이 기억에 남고, 이 밖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치열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신 분들의 책이 많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삶을 닮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삶을 정리하고, 건강하게 죽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있다.

사
랑
이
가
득
한
성
탄
절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리마인드 웨딩으로 더욱 특별한 크리스마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Merry Christmas.



contents

씨티칼럼 비크람 팬디트 CEO 비주얼 스피치 따라하기	11
아주 특별한 만남 1 제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박영숙 선생	12
히트예감 클리어 카드의 주역들	14
아주 특별한 만남 2 한국예탁결제원 이수화 사장	16
감성충전 지구촌 고향의 크리스마스	20
이달의 인물 개인영업3본부 김석민 영업본부장	23
씨티는 지금 씨티은행 뉴스 등	30
독자의 소리 독자의견 및 편집후기	35

Special

02	커버스토리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04	기획특집 2010 신입행원, 꿈을 쏘다
-	목표달성 365, 씨티 리더의 자격
-	오영제 부장의 2011년 목표 세우기

Dream

11
12
14
16
20
23

Harmony

24	Client Excellence 3분기 서비스모니터링 상담창구 우수직원
26	이야기가 있는 여행 편견을 깨준 사람들, 그들과의 특별한 인연(2)
29	문화마당 화제의 전시회

Happiness

30
35



발행일 2010년 12월 14일

통권 제 315호

등록일 1984년 8월 1일

발행처 한국씨티은행(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커뮤니케이션부)

발행인 은행장 하영구

편집인 커뮤니케이션부 본부장 이용식

총괄 및 진행 커뮤니케이션부 과장 김경오(02-3455-2337)

행보기자 김영삼, 이원석, 이유리, 한성호, 반송아, 진승우, 이선민

편집디자인 (주) 비파(02-762-6721)

디자인 이봉주

사진 고정필 바람스튜디오(02-762-6721)

인쇄 은성프린팅(02-461-0313,0317)